



중세 빨간색은 부자 상징... 빨간옷은 '귀족의 특권'

색채와 중세

중세의 전형적인 의복은 망토(manteau)였다. 귀족만이 날찍한 소매가 달린 빨간 망토를 땅에 끌리도록 길게 또는 넉넉하게 주름잡아 입을 수 있었다. 신분이 낮은 자들은 흐린 색의 저렴한 소재로 만든 소매가 없는 짧은 망토를 입었지만, 1525년경부터 무역으로 부유해진 소수의 시민들은 귀족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었고, 그들이 빨간색을 부자의 색으로 만들었다.

중세의 상징학에서 사각형은 빨간색이다. 사각형은 자연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이며, 인간이 작업함으로써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느낌을 주는 빨간은 물질과 현실을 상징하는 색이고, 안정적인 사각형 모습으로 드러난다. 중세에 빨간 옷을 입는 것이 귀족의 특권이었다. 중세의 회화작품에는 집에서 출산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빨간

침대보와 빨간 침대 커튼이 눈에 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빨간색이 출산하는 침대를 약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빨간 포대기나 빨간 리본을 단 포대기에 갓난아기를 싼다. 중세에는 사람의 기질을 4가지 색으로 구별하였다. "빨간은 쾌활하고 낙천적인 기질의 색, 노랑은 화를 잘 내는 다혈질의 색, 하양은 흥분하지 않고 조용한 기질의

색, 검정은 우울한 멜랑콜리(melancholy)의 색이다."

색채와 의복 색

초기 르네상스시절 전쟁의 잔인함을 나타내는 색은 빨간이었고, 18세기의 빨강과 파랑 그리고 하양은 군대의 옷 색깔이었다.

르네상스시대의 빨강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아름다운 의복의 색으로 인기가 높았고, 빨간 옷은 혼인할 때 혼례복으로 입었다.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뉘른베르크의 부유한 시민의 딸들은 빨간 혼례복을 입었다. 신랑도 빨간 바지를 입었다.

색채와 유대교

유대교 색채는 경전 구약성서(Old Testament)와 신약성서(New Testament)에서도 찬양되어 있으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Josephus, AD 37년~AD 95년)는 빨강, 파랑, 자주, 하양의 4가지 색으로 짜인 성막(聖幕)의 4원소를 언급하였다. "파랑은 공기, 자주는 바다, 삼베 실은 하양으로 땅을 나타낸다. 빨강(진홍색)은 원래 불을 나타내는 색이다. 구약성서 중 출애굽기에는 가능케 곧 삼베 실(하양색)과 빨강, 파랑, 보라 실에 관한 구절이 자주 나온다. 이들의 종교에서는 파랑이 주 여호와와의 색이다. 빨강과 파랑 그리고 녹색은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색이다. 이

맥락에서 빨강은 성부(聖父), 파랑은 그리스도, 녹색은 성령(聖靈)을 상징한다.

빨강은 구약성서 시편 23편 '푸른 목초지(green pastures)'에서 정열이나 위험을 가리킨다. 기독교에서 빨강은 그리스도가 흘린 피와 순교 그리고 신성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회교에서는 빨강, 하양, 파랑, 노랑의 따뜻한 색상과 높은 명도 그리고 강한 채도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혁명에서 붉은 깃발이 혁명의 상징이 된 후부터 혁명 또는 과격한 행동을 의미한다.



문화예술 기획자/철학박사·미술전문

먹의 '농담'으로 펼친 고향의 풍경

원갤러리서 김양숙 개인전

한국적인 정서를 섬세하게 그려 온 한국화가 김양숙 작가가 25일까지 광주 동구 원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나주 출신으로 30여년 동안 한문 서예와 문인화를 그려 온 김 작가는 첫 개인전에서 먹과 물감을 사용해 어릴적 풍경을 선보인다.

주요 출품작은 소나무와 대나무, 섬사이로 지는 아름다운 노을, 붉은 단풍으로 물든 숲길 등이다.

또 겨울풍경과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농가 등 아련한 고향의 모습도 전시 중이다.

김 작가는 "좋아하는 산책로를 걸으며 계절에 자연스러운 변화와 아름다움을 그려본다"며 "머물 듯 가는 인생 덧없어 가고, 인생의 끝에 와 있는 것 같아 슬퍼지지만 묵향과의 시간은 저의 꿈, 인생이 풍요로워 졌다. 먹그림 농담의 신비로움 빠져 여기까지 오게됐다"고 밝혔다.



김양숙 작 '환'

김양숙 작가는 빛고을 문인화 교류작가와 묵취회,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있으며 대한민국 문인화대전과 광주·전남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njb.co.kr



조정태 작 '해무'



조정태 작 '예술가의 초상-임남진'

화폭에 담은 동료작가들의 익숙한 초상

27일까지 '예술공간 집'서 조정태 개인전 주변 인물·일상 소재 회화작품 30여점 전시

그림으로 목격한 질문을 던지는 조정태 작가의 개인전이 27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다. '단색풍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조 작가의 9번째 개인전으로, 단조로운 색조들이 작품의 주를 이루고 있다.

로 개인전을 열었던 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인물과 풍경 등 주변의 일상을 화폭에 담았다.

절친한 동료와 오랜세월 알고 지내온 친구, 화우 등 여러 인물들의 모습이 조 작가만의 시선으로 해석됐다. 화려한 색 대신 흑백사진같은 단조로운 색채들이

화면 가득 채워졌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앞을 응시하는 김숙민 작가의 모습, 뺨한 조각 입에 물고 무언가를 말하려는 임남진 작가, 생각에 잠긴 박홍수 작가와 박소빈 작가, 또 순간의 모습을 포착한 작가의 친구들까지 작가 주변 인물들의 찰나의 순간이 눈에 들어왔고, 마치 그들과 마주하듯 절묘하게 화폭안에 담겨졌다.

인물 외에도 섬, 안개산, 해무, 부영

새, 장군의 그늘 등 이름 모를 잡초부터 안개 낀 바다, 그리고 스쳐지나가는 부영새, 어느 곱묵감의 담배라까지 특별한 것 없는 풍경들은 비장한 의미를 담은 듯 캔버스 안에 들어왔다.

조정태 작가는 2002년 3회 개인전을 마치고 10여년동안 그림과 거리를 두었다가, 2013년 4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다시 질주하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했으며, 광주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 민미협 회장으로 오월 기념전 등을 기획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상지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4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 전편 전영 기록 리본리니니 소파석 (커피석보유)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크린대미넷 충장로점 062-222-7733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1관	말레피센트2
2관	조커
3관	조커 / 가장 보통의 연애
4관	두번할까요
5관	가장 보통의 연애
6관	말레피센트2
7관 씨네커울	제미니 맨 / 신문기자 교마 자전거 스피디(더빙)
8관 씨네커울	퍼펙트맨
9관 프리미엄	너를 만난 여름 / 버티고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안길 12

가장 보통의 연애

10월 10일 개봉

만화영화 2

말레피센트2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만족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리스베이어스 CES 무선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혁신상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